

저는 세종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
채지영입니다.



창의나눔튜터링은 교과 내용을 잘 아는
튜터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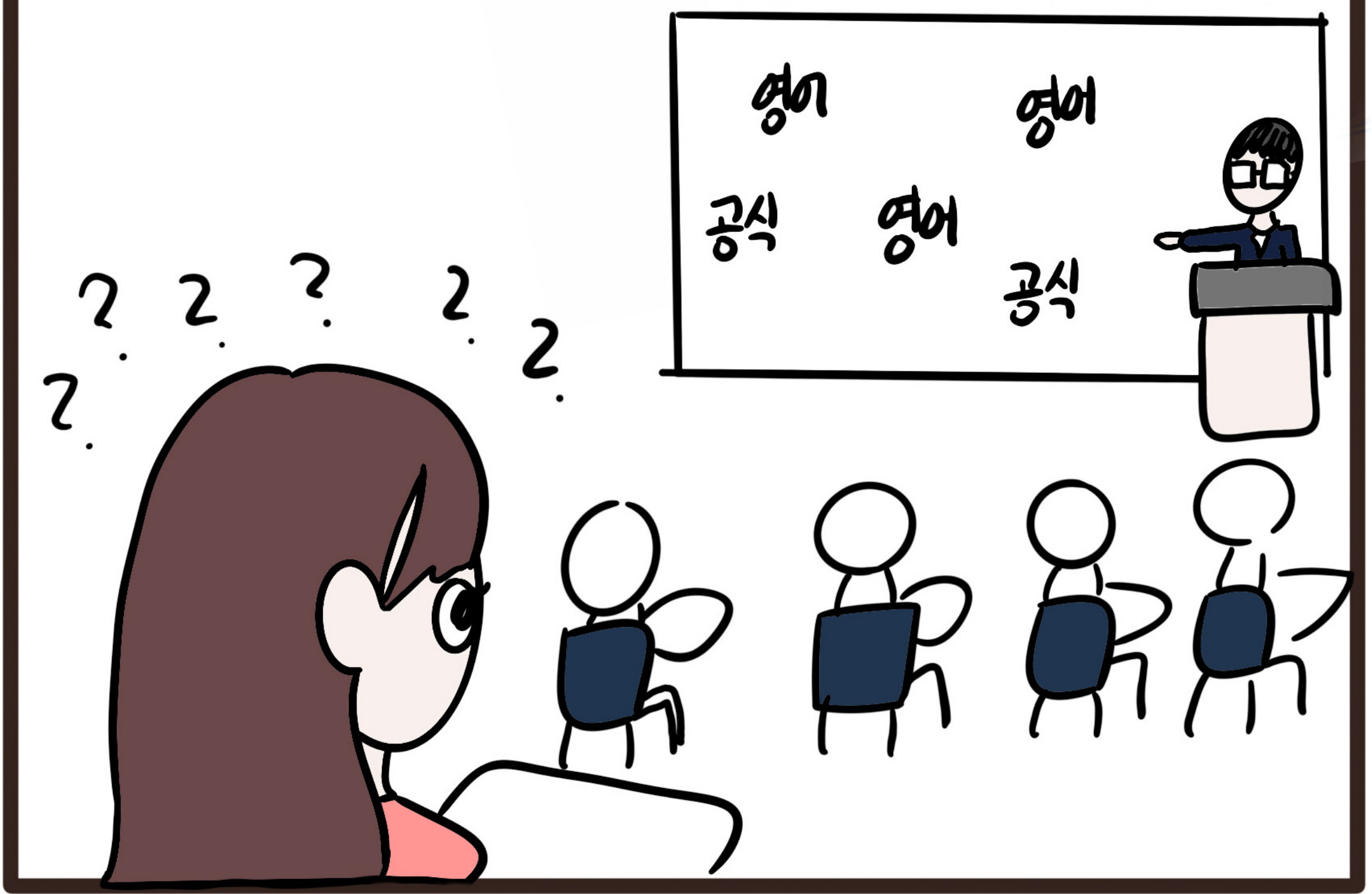
튜터를 가르쳐주며 학습에 도움을 주는
프로그램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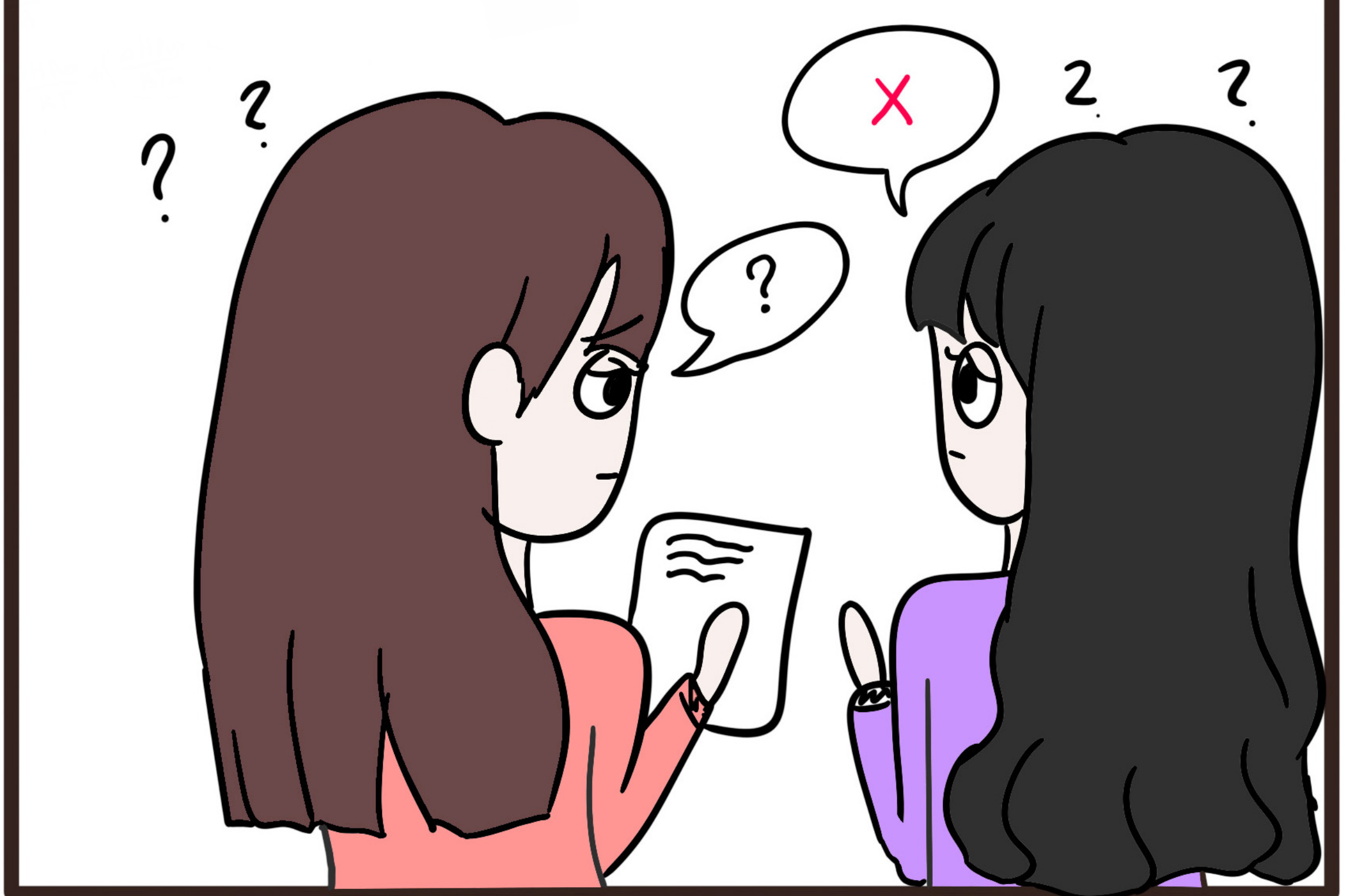
Q. 왜 참가하셨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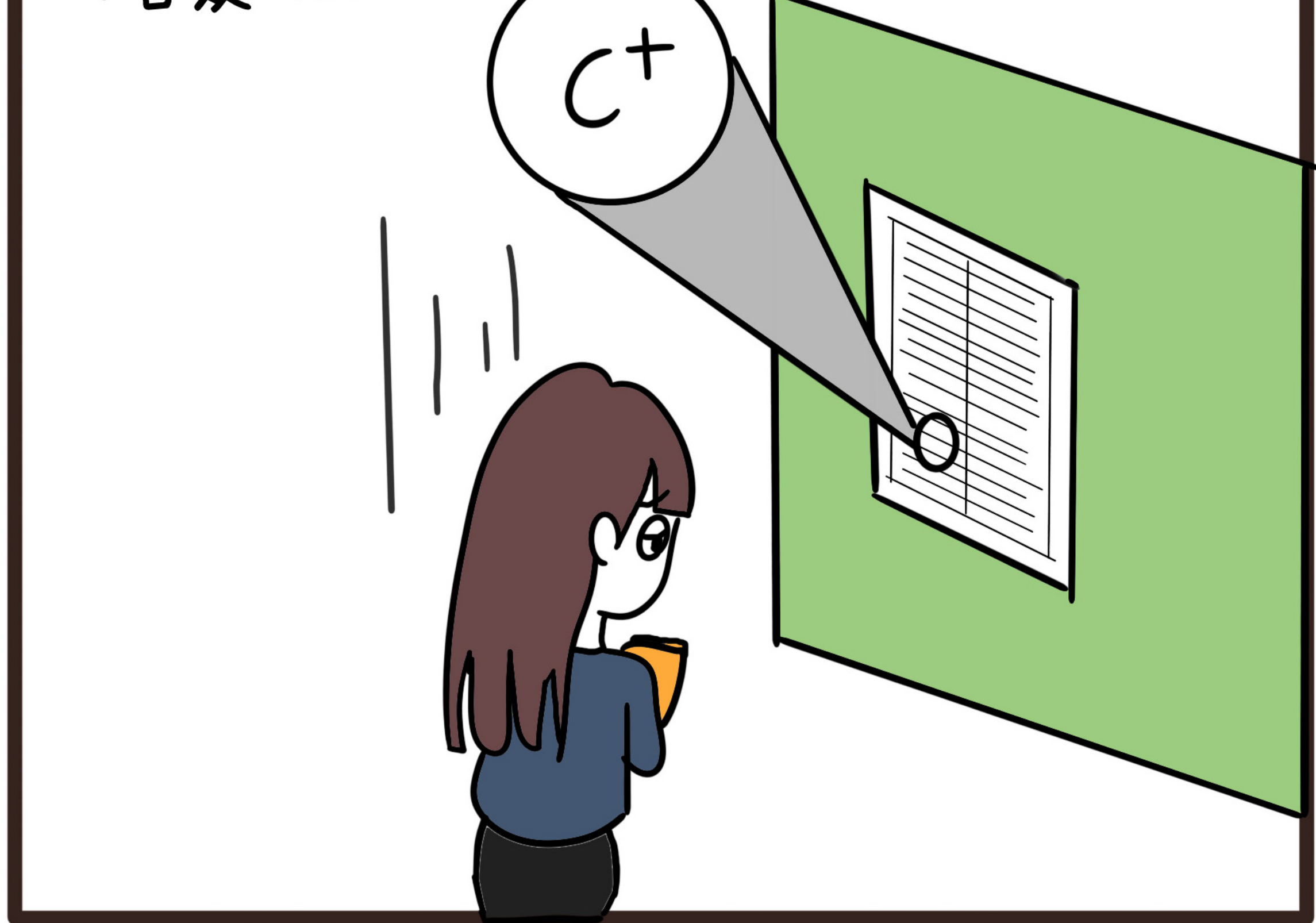
작년에 '물리화학'이라는 과목을 들으며
어려운 공식들과 내용에 당황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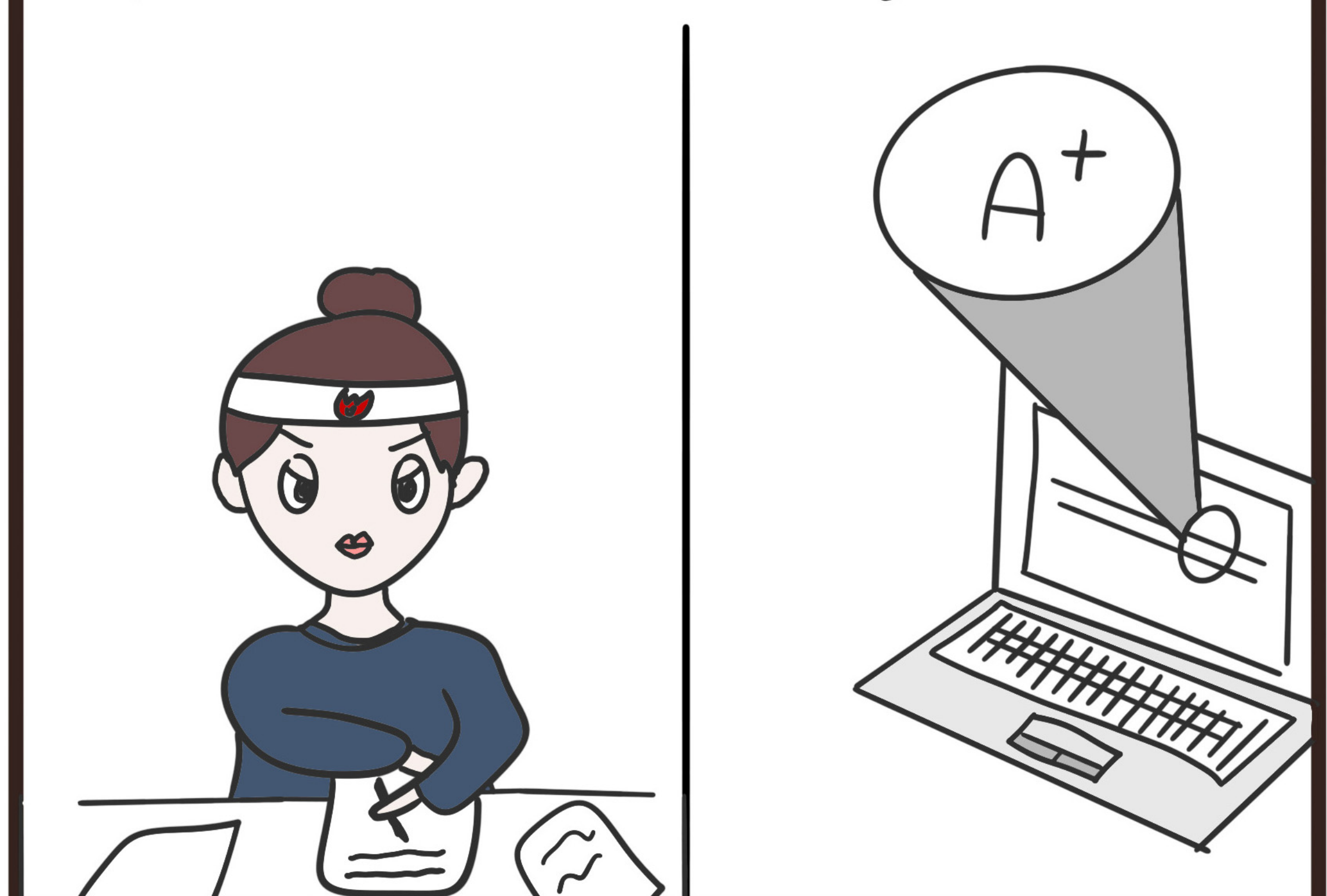
학과 내에서도 어려운 과목, 포기하는 과목
정도로 생각되었죠.



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중간고사 결과는
처참했어요



그래서 증명과 과제, 책의 문제 풀이를 다
공부하고 암기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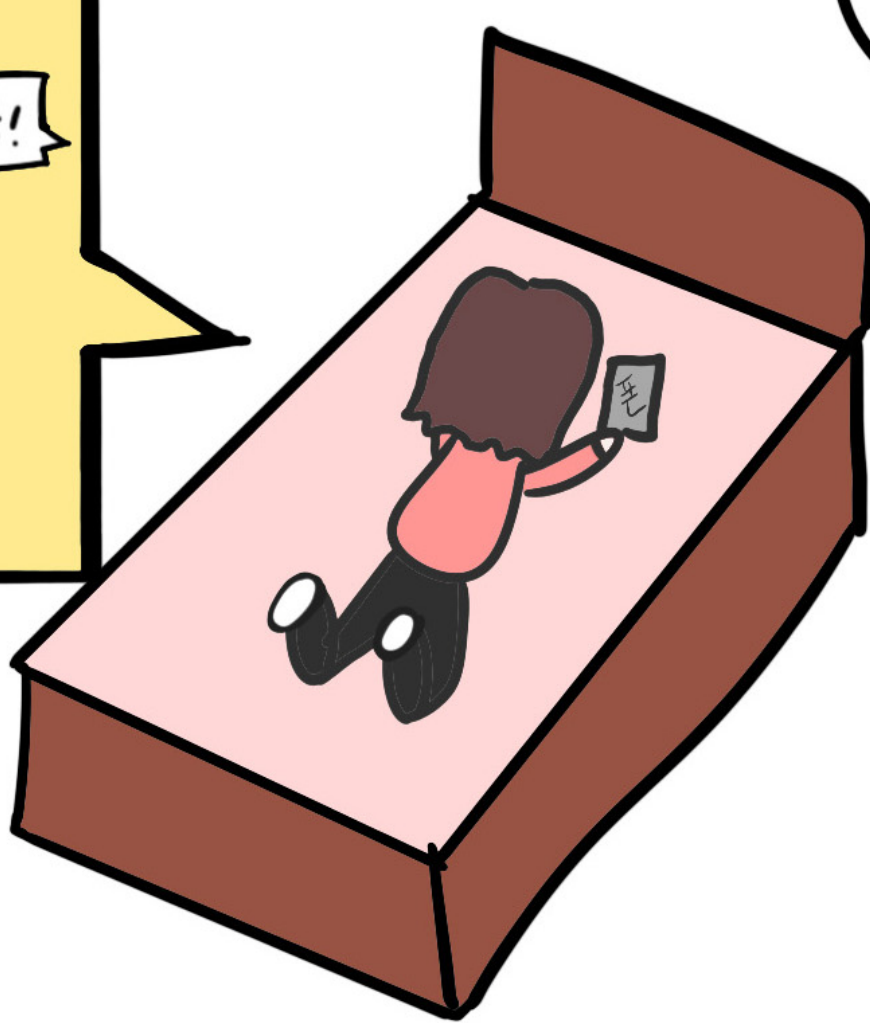
그래서 올해 친구들이 이 과목을 수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, 문득 창의나눔튜터링이 생각났어요

저번에 물리화학1 들었어?

응!

많이 어려워?
다들 어렵다고해서..

창의나눔튜터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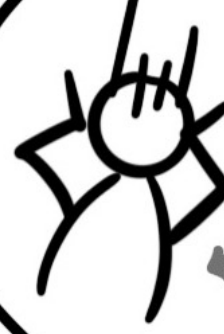


전공과목도 복습하는 겸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작년의 제가 떠올라서 도와주고 싶었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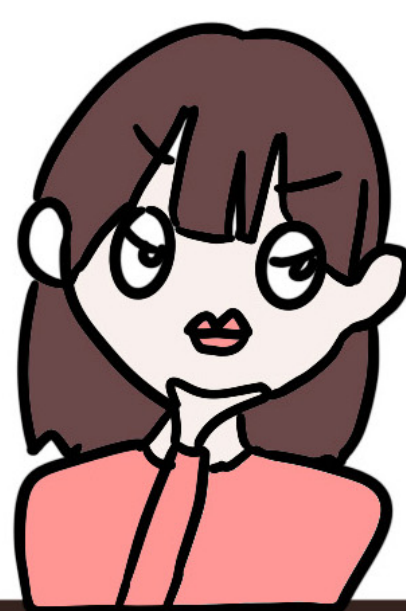
AA →
전공 공부하는점...



멘붕..



← 작년의 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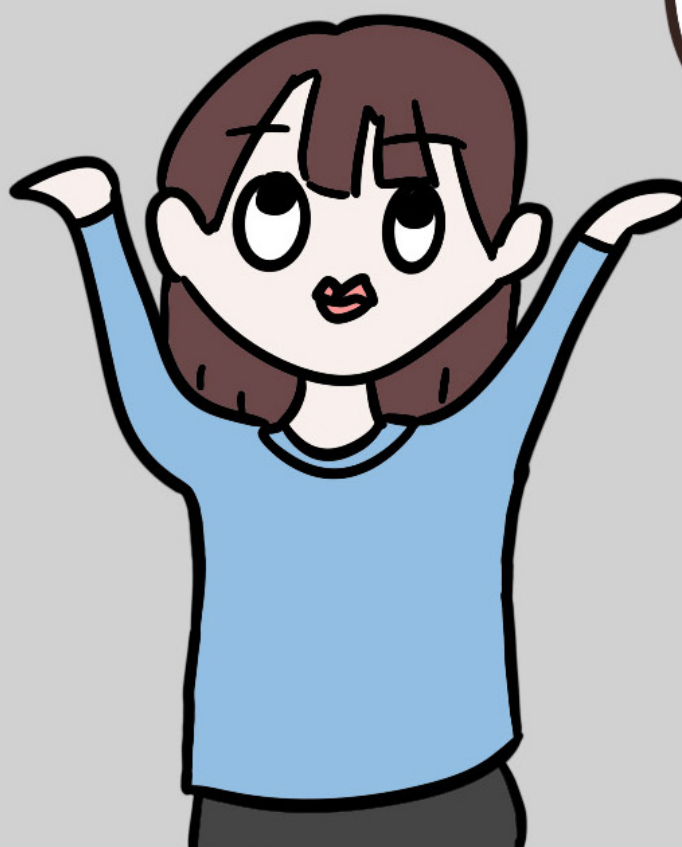


Q. 활동은 어땠어요?



Webex Meetings

매주 webex로 만나
내용을 정리하고 함께
문제를 풀며 학습했어요.



매주 과제와 수업자료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. 할일이 많아서 부지런해야했죠.

할 일

- 과제
- 알바
- 수업자료 준비
- 보고서 제출



그래도 하나하나 튜터들이 공부하고 질문할 때마다 뿌듯했어요

문제

< $-P_{ex} dV$ 이 공식 쓰면 될거 같은데...

< 답이 왜 안나올까?

저기서 반응식을 쓰면

사진

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



활동이 끝난 지금도 일종의 스터디 그룹이 되어,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.



꾸준한 활동으로 저와 튜터들 모두 공부습관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.

